

# 대구광역시



경북도는 25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 등 800여 명이 참석,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 6·25 영웅 앞에 선尹 “北 도발..단호히”

故 정휘봉 일병 화랑무공훈장 74년 만에 조카 품으로...

대구서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식 뒤 위로연 참석 다부동·영천·포항전투... 참전자 초청해감사 인사

6·25 전쟁 74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전쟁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 윤 대통령 6·25전쟁 기념식 참석 취임 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백발이 된 참전용사들은 절도 있는 거수 경례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장에 입장한 뒤 맨 앞줄에 앉은 참전용사들과 일일이 인사했다.

흰색 참전유공자 재킷과 모자를 착용한 노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힘차게 거수경례했다.

경례를 받은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도 참전용사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일부 참전용사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며 기록에 남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도 악수하며 인사했다.

행사에서는 미국과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가 차례대로 무대 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미국을 시작으로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국내 도착 순서로 입장했으며 태극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났다.

올해 행사는 6·25전쟁에서 전세를 뒤집은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와 경북 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대구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곳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가 달려 있었다”며 “포항 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승리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70여 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전 이후 70년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은 지금도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서는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사수와 서울 수복 등 전쟁 당시 상황을 표현한 공연이 준비됐다.

다부동 전투에 실제로 참전했던 이하영 참전용사는 ‘보고 싶은 전우에게’를 주제로 편지를 낭독하며 전장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을 떠올렸다.

이 참전용사는 “전우여 그날 우리는 이땅 위에서 싸워야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당신들의 피와 땀을 밟고 우리 아들, 딸들이 미소로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부 포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故) 정정태 하사의 여동생 정정순씨

와 구남태 상병의 아들 구민호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정 하사는 6·25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했으며, 구 상병은 노랑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하며 적군의 작전 계획을 알아낸 공을 세웠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6·25노래를 제창할 때는 참전유공자들이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행사에는 흥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대령 맥켄레이 유엔군부사령관, 대구시 보훈단체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대구 6·25전쟁 당시 상황 재현 행사

대구시 중구는 25일 동성로 28아트스퀘어에서 6·25전쟁 당시 음식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6·25전쟁 당시 피난 음식인 보리 개떡과 주먹밥을 시식하며 간접적으로 그 당시 공황했던 상황을 경험했다.

전시된 전쟁 사진을 보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금선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구지회 회장은 “국가에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는 구청 로비에서 6·25전쟁 맥거리 체험과 생존 참전유공자 15명과 함께 제복의 영웅 사진 전시회 행사를 개최했다.

맥거리 체험행사에서는 기성세대에게 맞는 주먹밥을 직접 만들고 삶은 감자를 나눴다.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춰 6·25전쟁 바로 알기 퀴즈와 톨렛 돌리기 등 다양한 보훈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라나는 아동들에게도 보훈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거행

경북도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 주일석 해병대제1사단장을 비롯한 도내 주요 인사, 군부대장, 6·25참전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군인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기념 공연, 6·25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6·25의 노래 및 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6·25전쟁사를 집중 조명하기 위한 사진 전시회와 주먹밥 만들기 체험, 북한 음식(강냉이죽) 시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지난날 맨몸으로 조국을 수호한 우리 참전용사들의 불굴의 용기와 희생이 있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참전용사들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는 국가를 위한 젊은 날의 희생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존중과 명예를 드높이는 섬김의 보훈정책’으로 끝까지 예우하고, 자유와 평화의 고귀한 가치가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제 아들이 지금 23세입니다. 그나이에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국가에 무엇을 해달라고 그런적 없잖아요. 그냥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셨습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한 병사의 화랑무공훈장이 74년 만에 조카의 품에 전수됐다. 의성군은 25일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고정휘부일병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고정휘부일병 조카 정영주(의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씨는 작은아버지의 화랑무공훈장을 전수받으며 맥떡한 가슴에 눈시울을 붉혔다.

고정휘부일병은 23세 때인 1950년 11월 입대했다.

한 달 후 7사단 3연대 소속 소총수로 강원도 춘천 내평지구 전투 중 전사했다.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고정휘부일병 조카인 정영주(오른쪽)씨가 김주수 의성군수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전수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앞서 영천지구 전투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지금까지 훈장은 여러 이유로 전수되지 못했다.

이후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통해 74년 만에 비로소 훈장이 제자리를 찾았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이다. 박재성 기자



### 단체장 일정



주낙영 경주시장은 26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대표회의’에 참석한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26일 오전 10시,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리는 ‘2024 동구 복지클래스 수료식’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성주군 SEONGJU GUN 새 이름 또 다른 시작! 2024년 8월 1일부터 금수면이 금수강산면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2



## 중구청, 복지관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

중구청은 지난 2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남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상운),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영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독사를 적극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상호 협력의 토

대를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고독사 ZERO, 복지 위기가구 ZERO의 행복 중구 만들기를 위해 △건강음료 제공을 통한 안부 확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쿠폰(우리동네행복나눔쿠폰)지원사업 등을 운영한다.   
조미경 기자

# 대구 침산공업단지가 스마트로봇 혁신지구로 변신

### 스마트제조플랫폼 구축 통해 업종전환 지원 및 구조고도화 2023년~2024년 사업비 80억,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대구는 '북구 침산공업지역'을 로봇 주변부품 생산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로봇 혁신지구 조성 2차년도 사업이 예산 40억 원(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된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 규모로 2023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추진된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활용 스마트제조플랫폼 구축, 수요맞춤형 로봇솔루션 개발지원사업, 친환경 공동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공동활용 스마트제조플랫폼 구축사업'은 침산동 대구지식산업센터 1층에 약 350평의 공동제조플랫폼을 조성해,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로봇부품 제작 장비 총 18종 24대를 구축한다.

2023년에는 3D 프린터, 5축 가공기 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2차년도에는 적층 제조 장비, 3차원 형상 획득 장비 등 수요가 많은 5종 6대의 로봇부품 제작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비는 경북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문인력이 맡아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수요맞춤형 로봇솔루션 개발지원사업'은 엔지니어와 로봇SI기업들이 침산기업과 협력 기반을 구축해 산업현장에 실제 적용가능한 수요맞춤형 로봇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3년 총 11건의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침산기업의 로봇부품생산 역량을 강화했으며 2차년도 사업에서도 9건(최대 1억 원)의 프로젝트와 기술지도·컨설팅이 참여기업모집 공모를 통해 시행된다.

아울러 2차년도 사업에는 침산공업지역의 구축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3.6억 원)과 연구개발된 성과물 및 기업 홍보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지원'(1억 원) 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 지원사업 및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월 3일(수) 오후 2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층 글로벌홀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스마트로봇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침산공업지역의 첨단기술 기반 제조 스마트화와 더불어 로봇 주변부품 생산기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여은 기자



## 수성구·유네스코,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조성 업무협약

수성구는 지난 24일 지역 내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대구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모의유엔총회와 같은 국제기구 진로 체험 등 프로그램을 갖춘 지역관 조성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은 김대권 수성구청장, 임현목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해 대구 스타디움 서편광장에 새로 조성한 수성미래교육(S-NEXT)에서 진행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대구관) 설치·운영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체험관 콘텐츠 제공 및 활용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타 인·물류 교류 및 세계시민교육 및 체험관 홍보 활성화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

특히 이번엔 조성되는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대구관)은 서울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제공하는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기구 체험 전시 내용을 수성미래교육관 다목적 실감미디어실

에 마련된 전용공간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구현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 보다 몰입도 높은 경험을 선사해 참여자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늘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세계시민교육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서 상호 연대감을 기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군위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농장 유입 차단 위한 드론 방역

군위군은 지난 19일부터 관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장 내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영천, 의성 등 인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군위군은 바이러스 유입의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인근 지역과의 주요 진출입로 등 경계 지점의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연초에 관내 양돈농가에 울타리 설치용 야생멧돼지 기피제 920kg를 기 배부했다.

드론을 활용해 산지와 접해 있는 양돈농장 위주로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피제 및 소독약을 살포하며, 이는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형이나 사각지대에도 적용가능하고, 농장 주변에 사람이 직접 진입하지 않고 공중에서 살포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진다.

또한 군위군 드론 방역팀은 농장과 최대한



떨어져서 방역 전 방역 복장을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군위 축산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장 자체 소독실시, 축사 내·외부 장화갈아신기 등 개별 농가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 달성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안전을 가입하세요"

### 재해대비 풍수해 보험 적극 홍보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달성군은 저렴한 보험료로 법정 8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7개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주민 스스로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서, 대설,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라 주택 등에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총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소유자이며, 주택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78%부터 100%까지, 기초생

활수급자의 경우에는 87%에서 100%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개별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의 민영보험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현 달성군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하도록 홍보하여, 재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 북구청,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북구청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은 교육효과가 높은 아동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생활 습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10개 유치원 406명, 2021년~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공연을 122개 기관 6400여명, 2023년 9개 유치원 303명 등 매년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5일부터 10월까지 10개 유치원, 총 15회에 걸쳐 6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소속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 속의 안전수칙, 교육용 인형(Annie)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아동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꿈나무인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달성군, 2024년 집중안전 점검 추진 결과 보고서

달성군은 지난 21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배준식 부군수 주재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의 일환으로 추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개월간 사방댐, 인도, 교량 등 노후·고위험 시설 및 재난취약 시설 72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127명, 공무원 85명, 공단 및 시설관계자 42명 등 총 254명이 민관합동으로 참여해 심도있게 진행됐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사항 명령 등 총 38개소의 지적사항을 파악해 이중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11개소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했으며 나머지 시설은 우수기도래 이전에 보수보강을 마무리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 대구시, 전문가 자문 통해 중대재해예방 추진

'중대재해안전협의회' 정기회의 대구시 중대재해 주요 정책과 고용노동청 협업사업 등 자문 협의

대구시는 25일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김선조 행정부시장과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구·군 안전부서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됨에 따라 방재, 재난, 안전, 보건,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 및 관계공무원(행정부시장, 재난안전실장)으로 구성된 대구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는 대구광역시의 중대재해예방 정책을 자문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컨설팅, 산

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 시(市)와 민간사업장의 재해예방 정책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중대재해예방 사업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대구고용노동청 협업),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등의 안전과 중대재해 전반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대구시 중대재해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군이 함께 모인 자리로 구·군별 산업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협의회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시의 중대재해 정책을 재점검하여 중대재해 없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기쁨'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 수립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을 수립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지구내 학교신설시 학교급별로 최소학급 기준을 마련해 경

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신설 최소학급 기준은 개발지구내 학교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의 최소규모를 의미한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주요 개발지구의 학교 신

설 요인을 심층 분석 후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 시 유망 학생 수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추산해 경북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 |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역신성장 플랫폼도시, 경산'**

**이후 |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및 도시서비스 구현**

- 1. 데이터 캠퍼링 모빌리티: AI Bike 제작, 실증, 매트릭스 고체 스테이션(BSS) 설치
- 2. 기후위기 대응 시민행복 솔루션: 대기 환경 관리, 열섬방지 솔루션
- 3. 스마트 미디어시티 아트 솔루션: 미디어 일 구축, 시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제작
- 4. 스마트도시 미래인재 양성: AI 일자리 전문강사 육성 교육, 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 5.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도시 APP: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 지역 특화사업 서비스
- 6.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GPU 인프라 제공, 청년 창업 지원
- 7. 시민참여형 오픈서비스 플랫폼: 캠퍼스 도시데이터 API화, 시민참여를 통한 신 서비스 창출
- 8. 데이터 에코체인 플랫폼: 신규 도시데이터 수집, 도시데이터 라벨링

**의성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Stay Smart, Living Smart, 활력있는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06 ~ 2025. 06  
 사업대상지/사업면적: 의성읍/면적: 112.45(㎡), 1,094(㎡) / 면적: 117,582(㎡), 656,056(㎡)  
 사업비: 40억 (국비(20%) / 지방비(20%) / (도비 50% / 군비 14%)

**추진전략**

1. 청년 코퍼 인프라	2. 스마트 청년보도	3. 스마트 마을	4. 스마트 헬스케어	5. 1인가구 시가지	6. 관광안내 키오스크	7. 통합 플랫폼
8. 스마트 스마트마을	9. 스마트 스마트마을	10. 스마트 스마트마을	11. 스마트 스마트마을	12. 스마트 스마트마을	13. 스마트 스마트마을	14. 스마트 스마트마을

인포그래픽경산시 | 인포그래픽 의성군

# 경산시·의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최종 선정

## 2026년까지 국비 93억 확보 인구감소 지역경제 쇠퇴대응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경산시와 의성군이 최종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국비 93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교통·환경·안전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에 해결하고 기후 위기지역 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는 등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거점형, 감소형, 솔루션 확산 등 3개 분

한수원, 원전 엔지니어링 협의회 발족 원전 산업계 간 정보 공유 및 신뢰 강화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이 25일 원전 산업계 간 엔지니어링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 등 소통과 신뢰 강화를 위한 원전 엔지니어링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설계, 제작, 정비, 가동중검사 등 4대 분야 40개 협회사가 참여해 앞으로 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업무 방향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경주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계 미래를 위한 신뢰 강화'를 주제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도약을 위한 역할 및 방안' '원전 산업계의 건전하고 공정한 관계 형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Work Safe, Work Together!'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치며 산업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윤용찬 기자

## 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도는 감소형 1곳(신청 17곳)과 솔루션 확산 사업 1곳(신청 19곳) 등 최종 2곳이 선정됐다.

경산시는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도시 인프라(경산 입당 유니콘파크, 청년지식농어터 등)를 연계·활용해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한다.

AI 모빌리티, 스마트미디어시티 아트 솔루션, 청년창업 스마트플랫폼, 데이터 에코체인 플랫폼 등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서비

스 구축으로 신사업 일자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된 의성군은 총사업비 25억원(국비 12억5000만원·지방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해 노령인구 대상 스마트헬스케어, 1인가구 AI돌봄시스템 적용으로 촘촘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횡단 보도, 스마트 폴, 도로위험 감지(블랙박스 등),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현재 구축 중인 광역데이터허브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연계해 도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 후 제공하는 등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경산시, 의성군이 성공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내 더욱 많은 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우 메타버스과학기술장은 "이번 성과는 도와 시·군이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도내 시·군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조미경 기자

## 스 구축으로 신사업 일자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된 의성군은 총사업비 25억원(국비 12억5000만원·지방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해 노령인구 대상 스마트헬스케어, 1인가구 AI돌봄시스템 적용으로 촘촘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횡단 보도, 스마트 폴, 도로위험 감지(블랙박스 등),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현재 구축 중인 광역데이터허브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연계해 도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 후 제공하는 등 스마트도시

## 이철우 경북지사, 日本에 저출생 극복 특사단 파견

### 부산광역시 나기초 방문 극복 사례 벤치마킹 나서

이철우 경북지사의 저출생 극복 일본 특사단이 저출생 극복 우수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과 나기초를 방문해 저출생 극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양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 등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은 지난달 27일 이 도지사과 하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의 저출생 극복 협력 전화 통화 후

### 속이다. 특사단은 돗토리현 하라이 신지 지사를 예방해 저출생 극복 및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후 하라이 신지 지사가 주재하는 돗토리현 저출생 대책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아이정부장을 만나 양 지자체의 저출생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 국제포럼 공동 개최를 협의하는 등 저출생 극복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출산율 2.95배 등의 기록을 이룬 산골마을 나기초의 시고토스탠드 일자리 편의점도 방문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편의점은 일본 내에서도 5~6곳의 지자체가 도입했으며 도는 이를 벤치마킹해 올 하반기부

터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1호점은 구미에 구축한다.

나기초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나기차일드 홈도 방문해 공동육아 운영 방식과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스마일루(smile) 등의 우수정책 사례를 배웠다.

김민석 정책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저출생 극복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공동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북도는 일본 현장 방문에서 보고 배운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 연계하여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김성용 기자

## 국립 첫 반려견 전용 김천숲속야영장 오픈



### 국내 첫 반려견 전용 국립 산림휴양시설이 문을 열었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김천시 대덕면에 국립 김천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 개장식을 가졌다. 경북도는 25일 반려동물 동반 복합공간으로 정식 운영되는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개장식에는 산림청장, 조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송인석 국회의원, 김천시장, 도시의원을 비롯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에건연맹 등 60여 명이 참석,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야영장 개장을 한 마음으로 축하했다.

야영장은 2.8ha의 규모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반려견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대소형 개로 분리된 놀이터, 캠핑사이트(오토캠핑 11면, 백패킹 4면) 등을 조성하고, 착공 4년 만인 7월에 개장한다.

도는 김천시와 함께 야영장 진입 교량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0여억원을 마련하는 등 야영장 개장에 힘을 보탰다. 이경호 기자

# 군민소통 열린의회

군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밝은 달성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칠곡군, 경로당 행복선생님과 소통간담회

칠곡군은 지난 24일 왜관읍에 위치한 어르신들의 전담 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여가·교육·복지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 행복선생님을 파견한다.

군은 현재 18명의 행복선생님이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김재욱 칠곡군수의 장미꽃 전달을 시작으로 행복선생님들의 활동 영상 시청과 현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예천군, aT 초청 설명회 개최

업체별 상담 지원... 예천 농특산물 수출 확대 기대

예천군은 25일 오후 예천군청 영상회의실에서 aT 초청 설명회를 개최, 예천군 농특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관련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군은 aT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을 통해 수출유통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과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에 나섰다.

상담회에는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시골이야기푸드의 이재준 대표는 "그동안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판로 개척이 어려워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예천군과 aT를 통해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출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수출을 시작하는 업

체들은 바이어 확보와 해외시장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aT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예천군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출 농가를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을 만드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송명주 기자



김학동 예천군수가 지난 24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개막

고·대·일반부 700명 선수 참가 실력 겨뤄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가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6일간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24일 개막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들과 대한양궁협회 한규형 부회장을 비롯한 선수와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대회를 맞아 예천을 찾아

준 선수와 지도자들을 환영한다. 한국 양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굴의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한양궁협회 한규형 부회장은 "선수 여러분들은 한국 양궁을 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경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의선 회장의 대회사를 대독했다.

대한양궁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고·대·일반부 7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치게 된다.

리커브 경기는 개인전, 단체전, 혼성단체전, 거

리별(90m, 70m, 60m, 50m, 30m) 경기가 치러지며, 컴파운드 경기는 개인·단체·혼성단체전, 거리별 50m의 기록을 합산해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도내 고등부는 전국체전 3차 선발전을 병행한다.

대회 마지막 날인 29일은 종목별 결승 경기가 TV를 통해 중계 방송된다.

군은 경기장 시설물과 주변을 정비하고 대회 기간 중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숙박업소, 음식점, 휴게시설 등에 대한 친절 및 청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손님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송명주 기자

안동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올인

안동 백신산업, 국제무대로!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 강화

안동시는 25일 경북도청 화랑실에서 국제백신연구소와 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협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인 이철우 경북지사, 신동보 안동시 부시장, 제림길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정태주 국립안동대학교 총장, 이흥균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센터장, 전익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임재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 및 국제백신연구소의 글로벌 네트워크 자원의 공동 활용을 기반으로 △백신의 개발 및 생산 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백신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화를 위한 상호협력 △국내외의 네트워크 공동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식 후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현판식을 가졌다.

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돌아보며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역 혁신기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백신연구소(IVI)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하에 1997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다.

전 세계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해 백신 연구, 개발, 보급을 주요 임무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저소득국의 백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다.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은 2016년 설립된 현재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 구축, A형 간염 백신 및 SFTS/HFRS 백신 공동 연구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안동시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 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특화단지 지정 시 국제백신연구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선진시장 및 신시장이 기술-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이 기대된다.

신동보 안동시 부시장은 "안동시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지역인재 양성 등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명주 기자

호계창고 시골 영화 & 음악 콘서트

오래된 양곡창고 주민친화 복합문화체육공간 대 변신

호계창고 시골 영화&음악콘서트가 막내렸다.

콘서트는 지난 21일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에 위치한 호계창고에서 열렸는데 주민 170여 명이 함께했다.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소규모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중 유휴자원 활용 지역협력사업이다.

오랜 세월 방치돼 낡은 농협창고를 매입 후 새롭게 정비,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재탄생되면서 호계면주민자치위원회와 호계·상양 권역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손잡고 개최한 첫 기념행사이다.

1부 행사에 건강수지침, 인생사진관, 스포츠존 등 체험프로그램, 2부 행사는 해금&드럼 2인조 밴드 프롬 310에서 영화 OST 및 국악공연을 했다.

옛 시골영화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상영 등 다채롭고 알차게 준비, 문화생활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시골마을 주민들에게 길고 긴 한여름 밤의 무료함과 더위를 날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전시회, 공연, 워크숍,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제공,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나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올해가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마지막 연차로 알고 있고, 어렵게 확보한 사업인 만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협력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상양·호계권역을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연계 등 9개 사업 94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성료

자전거 도시 상주... 면모 유감없이 발휘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막내렸다.

행사는 지난 22일 북천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렸는데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선'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미스트롯2 윤태화, 박미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상원 부시장을 비롯, 내외 주요 인사와 학생, 자전거 동호인, 시민 등 1000여명이 자전거대행진에 참여해 '자전거 도시 상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행사는 시민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자 축사 등 의전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고 자전거타기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퍼포먼스, 자전거 안전 이용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0시부터 시작된 시민자전거대행진은 북천시민공원을 출발, 시내 일대를 돌아 다시 행사장에 돌아오는 코스로, 상주시가지의 중심을 자전거로 마음껏 달리는 색다른 체험을 선사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올해로 벌써 14회째를 맞이한 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통해 자전거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100일 동안 기침하는 백일해를 아시나요?

경산시, 백일해 백신 적기 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경산시는 25일 전국적으로 유행 중인 백일해 전파 방지를 위해 지역 교육 시설과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백일해 예방수칙 준수와 백신 적기 접종을 당부했다.

백일해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백일해 환자 수가 최근 4주 동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누적 환자 수는 294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백일해가 크게 유행했던 2018년도 연간 발생 환자 수(980명)를 이미 2.5배를 넘어섰다.

유행 소리가 나는 기침이 발작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유행 시기에는 고위험군인 1세 미만(2·4·6개월)·임신부(27~36주) 적기 접종 및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돌봄 종사자도 백일해 접종(Tdap)을 해야

한다.

급성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중 백일해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으로 발열은 심하지 않으나 전염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생후 2·4·6개월 기초 3회, 15~18개월·4~6세·11~12세 추가 3회 실시한다. 이후 Tdap 백신으로 10년마다 추가접종이 권장된다.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적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Tdap)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미접종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백일해에 걸리면 학교, 어린이집 등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 기간 등교, 등원을 중지하고 자택 격리를 하며,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조미경 기자

김천시, 금연·절주 야간 캠페인 시행

건강한 삶 위한 첫걸음 절주 금연 유도 총매진

김천시는 지난 24일 김천시외버스터미널과 김천역 일대에서 흡연과 과도한 음주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금연·절주

야간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은 초·중·고등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흡연과 과도한 음주 폐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건강생활에 관한 관심 유도과 금연·절주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천교육지원청, 김천경찰서와 함께 담배의 폐해를 알리

는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작해 김천역까지 거리 행진을 했으며 금연 홍보 물품 및 금연·절주 리플릿 등을 배부해 자연스럽게 절주와 금연을 유도했다.

이우원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흡연과 음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농촌지도자 문무대왕면지회, 농촌 환경정화활동

농촌지도자 문무대왕면지회는 지난 24일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농약병 수거활동을 문무대왕면 마을 일대에서 펼쳤다.

수거행사에는 농촌지도자 회원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농가에 보관하고 있거나 경작지에 방치된 농약병과 영농부산물 등을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집

중 수거했다.

김영하 농촌지도자 문무대왕면지회장은 "버려진 농약병으로부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약병 수거현장 찾아 격려

읍면동 지회서 수거한 영농폐기물 현곡DSC 공동집하 분리 적재

주낙영 경주시장이 25일 현곡면 DSC에서 열린 영농폐기물 수거·분리 현장을 찾아 농촌지도자 임원들을 격려했다.

탄소중립 희망농촌 실현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사)한국농촌지도자 경주시연합회 임원 및 대의원 등 60명이 참석했다.

주 시장은 현장에서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 및 수질 오염 유발은 물론 토양 속에서 썩지 않아 농작물의 생육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앞장서서 환경보전에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지역과 농촌 환경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행사는 그간 18개 읍면동 지회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현곡면 DSC에 공동 집하한 후 농약병과 농약봉지로 분리해 계량했다.

차량에 적재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포함수거사업소로 옮겨져 납품됐다.

납품된 영농폐기물은 kg당 플라스틱병 기준 환경공단 1600원, 경주시 800원의 수거보상비가 각각 지급된다.

수거 활동에 참여한 회원은 "2022년 보상금 인상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수거 보상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키는 일거양득으로 농촌지도자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경주시 농촌지도자회 농촌 환경 정화활동은 2020년부터 5년째 이어오고 있다.

2020년 2.5톤, 2021년 4.3톤, 2022년 6.7톤, 2023년 11.2톤을 수거한 바 있다.

시 연합회는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이 25일 현곡DSC에서 열린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주시, 영·호남 장애인문화체육 친선교류전

화합 소통의 장 마련 양 기관 유대감 강화

경주시가 새달 10,11일 이틀간 '제3회 영·호남 장애인문화체육 친선교류전'을 개최한다.

경주시와 여수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경주시장애인체육관, 교원드림센터, 경주엑스포대공원 등 3곳에서 나눠 개최된다.

행사 첫날인 10일 오후 2시 경주시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으로 시작으로 이틀간의 열전이 펼쳐진다.

개회식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경주시와 경주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전한다.

친선경기가 진행되며,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율리, 좌식배구 등 5개 종목에서 두 도시의 선수들의 열띤 경쟁을 한다.

당일 저녁에는 교원드림센터에서 출전 선수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에 열린 제2회 영·호남 장애인문화체육 친선교류전 대회 모습

들을 환영하는 연찬회가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문화답사가 진행된다. 답사 이후엔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북함문화공간 미담티에서 중식을 즐기며, 이틀간의 행사를 마무리한다.

친선교류전은 2019년 9월 26일 경주시와 경주시 장애인체육회 간 체결된 MOU에 따른 것으로, 두 도시는 격년으로 행사를 개최하며 장애인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오고 있다.

경주시 안강읍, 마을공동쓰레기집하장 우수마을 포상

경주시 북경주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내 마을 공동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일체 점검을 실시, 우수마을 5개소를 선정해 포상했다.

마을공동쓰레기집하장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 쓰레기배출 취약지역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2021년 경부터 설치한 아파트형 쓰레기 집하장이다.

해당 집하장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과 협동이 중요하다.

태국 핏사놀록 대표단 경주 방문... 협력구축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정체성 발전 방향 일직

경주시는 태국 핏사놀록주 대표단이 24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푸시솜짖 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피사놀록주, 핏사놀록시, 태국전시컨벤션뷰로, 태국창조경제진흥원 등 4개 기관이 경주를 찾았다.

핏사놀록주는 태국 아유타야 왕국의 옛 수도로 현재 태국 주요 관광 도시이자 태국중앙정부컨벤션전시청 지정 태국 10대 MICE 도시다.

경주시와 핏사놀록은 이같은 역사·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2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문화관광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태국 핏사놀록주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경주시와의 본격적인 교류를 위해 기획됐다.

대표단은 26일까지 경주에 머물며 스포츠페스티벌 참가, 경주문화재단 견학, 경북문화관광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대표단은 지난 24일 주낙영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문화·체육행사 교류, 교육 및 청소년 교류, 경제 분야 및 비즈니스 협력, 관광정책 교류 및 문화유산 보존 기술 공유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푸시솜짖 태국 피사놀록 주지사는 "2025 APEC 경주유치 확정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며 오



는 9월에 열린 핏사놀록주 주최 롱보트 대회에 주낙영 시장을 공식 초청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와 태국 핏사놀록은 역사·문화적으로 유사하며 양국의 대표 관광·축제·MICE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이 일치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양 도시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총력'

경주시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119안전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간 비상연락을 정비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지난달 문무대왕면 1곳, 산내면 4곳 계곡을

대상으로 물놀이 인명 구조함 구축과 위험표지판, 심장 충격기 등 안전시설·장비에 대해 사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달은 안전지킴이 11명에 대해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했다. 이들에게는 안전관리지역 순찰, 계도 활동은 물론 비상시 수상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활동 등의 임무가

부여된다. 시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휴일·주말에도 순찰반을 편성해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용객들이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Advertisement for Gyeongju's population policy. It features the slogan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Happy citizens, proud Daegu) and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살고 싶은' (A pleasant and happy city, a place you want to live in). The ad highlights four key areas: '도전하는 청년' (Challenging youth), '활기찬 노후' (Vibrant old age), '꿈을 키우는 아이' (Raising children with dreams), and '행복한 가정' (Happy families). It concludes with the message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We will create a city where citizens are happy with population policies tailored to our needs.) and the Daegu Metropolitan City logo.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 영덕군, 여름철 자연재난 사고 재발 막자...

## 자연재난대비 점검회의 인명 피해 최소화 총력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추진된다. 영덕군은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회의를 열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회의에서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

군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현장 관리 실태 점검 계획 △수산·농업 분야 피해 예방 상황 관리 등에 대해 분야별 소관 부서장과 읍면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했다.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구 분포를 반영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대피소로 지정 운영한다.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 무더위 쉼터



김광영 영덕군수가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운영 등 폭염에 의한 주민 건강·안전 보호 대책 등 여름철 이상기후와 폭염으로 인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김광영 영덕 군수는 "여름철 자연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인명 피해 제로를 목표로 각

부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긴급한 협조 연계로 수립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 청송소방서,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장려상'

청송소방서가 119소방정책 콘퍼런스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소방조직 내 혁신·창의적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해 마련됐다.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는 1982년 처음 시작돼 41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술논문 대회다. 경북도내 21개 소방서 중 1차심사를 통과 한 5개 소방서(청송, 예천, 김천, 구미, 포항북부)가 연구논문 발표대회 경합을 벌였다.

청송소방서는 소방관서로는 최초로 실화재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실화재 전문훈련 시설과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주제로 현 소방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문정환 청송소방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랑의 밑반찬·미숫가루 나눔 행사

청도군은 24일 청도군여성자원활동센터회원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도군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미숫가루' 나눔 행사를 가졌다.

청도군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매년 회원들이 김장, 떡국 등을 손수 준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이 아침 일찍 정성껏 손질해 만든 밑반찬과 미숫가루는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 200여 세대에게 전달된다.

## 울진군, 그녀가 죽었다 영화 오늘 상영

울진군은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7일 울진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유료 상영한다.

이 작품은 연기 베테랑 변요한, 신현선 주연으로 평소 흠뻑보기가 취미인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가 인플루엔자 한소리(신현선)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살인자의 누명을 벗기 위해 한소리의 주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작이다. 집신한 설정과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로 구성돼 103분 동안 지루할 틈이 없으며 누적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 현재까지 절찬 상영 중이다. **이정수 기자**

## 에너지 절약 동참하고 인센티브 받아주세요

청도군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분야 참여 가구 중 2023년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599가구에 892만 3000원의 인센티브를 청도사랑상품권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6월 말까지 지급한다.

에너지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 실천) 3개 분야 중 하나로, 가정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제도이다.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는 2373 가구가 참여해 599가구가 에너지를 절감(전기 272MWh, 수도 196㎥, 도시가스 443㎥), 131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조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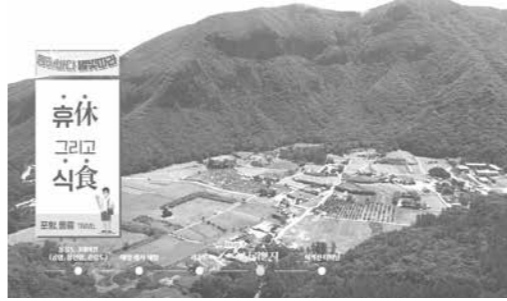
# 울릉X포항 핫플레이스로 떠나요!

## 울릉군, 대표관광상품 '동해 따라 별빛 따라' 울팡투어 4차례 진행

울릉군은 경북 대표관광상품으로 선정된 '동해 따라 별빛 따라 울팡투어'를 26일부터 4차례로 진행한다.

군은 지난해 경북도 경북 대표관광상품 체험비 지원 공모사업에서 권역 연계형에 '동해 따라 별빛 따라 울팡투어'라는 여행상품으로 포항시와 함께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투어 첫째 날은 포항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일본인 가옥거리와 스페이스 워크 등을 방문, 당



일 저녁 대형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로 이동한다.

나리분지 및 행남해안산책로를 걸으며 자연 그대로의 생태 힐링 투어 프로그램으로 울릉도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를 즐김과 동시에 포항의 유명한 야간관광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동해 따라 별빛 따라 울팡투어는 울릉도와 가까운 지역인 포항과 함께하는 의미가 크다. 울릉도와 포항을 함께 여행함으로써 1석 2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많은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자연환경과 힐링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 2024 울진군 전입세대 지원사업 실시

### '야송 이원좌 화백 소장 작품 공개전'

울진군은 새달 1일부터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기념품 및 공공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울진군 전입세대 지원사업'을 한다.

사업은 울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다.

전입세대에 전입을 축하하는 기념품과 공공시설 이용권을 지급,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연쇄적인 전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을 두고 있다가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세대 지원 신청자에게는 세대당 3만원 이하 지역특산품과 세대 구성원 수별로 울진 왕피전 케이블카 이용권, 울진군 죽변 해안 스키리조트 탐승권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 시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손병욱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세대가 우리 군에 애착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울진군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 청도군, 다문화 가족 대상 힐링캠프 인기

###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 나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지난 22일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도군가족센터와 연계,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대상 힐링캠프를 열었다.

재단은 지역민과의 정서적 소통, 나눔 문화 실천 등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하여 지역민의 사회·문화적 이익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청도에서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18팀을 초청해 대나무 활 만들기, 연 만들기, 미션 윗

놀이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과 마술공연 등을 선보여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은 "아이와 함께 평소 하지 못했던 전통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기획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기하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는 "이번 행사에 같이 힘써준 청도군가족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계층과 꾸준히 소통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영양군, 청소년의 꿈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 영양여성단체협의회 인재육성 장학금기탁

영양여성단체협의회는 25일 영양군 인재육성 장학회를 방문,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난달 열린 영양군산나물축제 버스 운영 수익금이다.

이옥화 협의회장은 "한 아이의 교육은 온 사회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탁한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에 도움이 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애정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양여성단체협의회는 사랑의 반찬배달 지원



사업, 불우계층 장학사업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생신상 차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영양군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 청소년과 영양군 교육 사업을 위해 기탁금을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이 생기를 바라며, 뜻깊은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양군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 영덕군,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

### 인력난 해소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장려

영덕군은 지난 24일 로하스 수산물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대상은 지역특화산업인 수산업 분야 기업들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유학생이거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 이상 되는 근로자들의 요건

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조건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동반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과 배우자 취업 활동까지 허용되는 특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외국인인 △K-드림의국인지원센터(<https://k-dreamcenter.co.kr>) 구인·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연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희망 외국인 추천서 발급 신청(영덕군 기획예산실) △추천서 발급(경상북도→영덕군)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출입국 포함출장소) 단계로 진행된다. **조여은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고령군의회는 25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하며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건축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며, 유희순 의원의 '농촌지역 의료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 성원환 의원의 '투자유치 및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군정질의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공금증을 해소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고령군의 보건, 투자유치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들을 이어갔다.

한편 고령군의회는 오는 7월1일(월)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9대 의회 후반기 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배영백 기자



의성군, 고추 바이러스  
현장 진단 서비스 제공

의성군은 고추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조건을 갖춘 여름철을 맞아 농업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고추 바이러스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추 바이러스병은 현재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어 진단을 통해 감염된 식물체를 제거하고 관련 매개충(총채벌레, 진딧물)을 방제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고추 바이러스 현장 진단 서비스' 실시로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판별해 농가의 신속한 방제를 유도하고 작물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6.25전쟁,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경북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강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영천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

“자유는 가치로 오늘의 변명을 있게 해주신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영천시는 25일 영천시민회관에서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학생, 3사관학교 군악대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영천시재향군인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강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영천별빛어린이무용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받지 못한 故소상순, 故곽용수 유공자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한 6.25참전유공자회 박병환, 함도학, 김영소, 윤만주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유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지회장은 회고사

에서 “전쟁이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국가의 번영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그 짧았던 젊음을 조국에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고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현 영천시 부시장은 격려사에서 “과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던 영웅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유족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 개최

영주시도 25일 영주시민회관에서 6.25전쟁 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무공훈장 전수 ▷보훈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보훈주제 공연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6.25전쟁 당시 사진전이 함께 열렸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기념식에서 6.25전쟁 당시 공훈을 인정받았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고(故) 권병기, 고(故) 박만교 참전용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보훈단체 회원 10명에게 보훈유공자 표창패를 수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관내 영광중학교 1·2학년 학생들, 영광고등학교 주니어 학군단, 영주어린이합창단 학생들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의

미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조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분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

성주군에서는 6.25전쟁일을 맞이해 성주군보훈단체연합회 주관으로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및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앞서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안보학 초빙교수로 역임중이며 성주군무공수훈자회 지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택수님의 강의로 ‘6.25전쟁과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의 안보교육이 실시됐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결의문낭독, 만세삼창, 6.25노래제창순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6.25전쟁 당시 공적으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지만 그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고 이준용 소위님의 무공 훈장을 아드님인 이국영님께 전수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6.25참전유공자회성주군지회 나홍엽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참전 유공자의 피와 땀의 결실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며 “점점 사라지는 6.25전쟁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없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예우에 더욱 노력하겠다.”말했다.

■봉화군,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

봉화군은 25일 봉화군청소년센터 1층 공연장에서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참전유공자 및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가의 위기 앞에 조국을 수호한 참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전후세대에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개최됐으며 국민의례, 기념사, 6.25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기념사에서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선 세대들이 희생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며 더불어 이번 기념식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이어받아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봉화군은 참전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고, 영예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은하 기자  
전성기 기자  
도재훈 기자

제2회 영천스타골프챌린지 개최  
“녹음 짙은 풍경보며 라운딩”

제2회 영천스타골프챌린지가 지난 24일 영천오픈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골프 비성수기 시즌에 전국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골프 대회로, 이전 대회보다 더욱 커진 규모로 진행됐다.

총 60개조, 240명이 참가해 4인 1팀으로 구성된 골퍼들이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샷건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으며, 대회 참가자들은 녹음이 짙은 영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라운딩을 즐기며 실력을 겨뤘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6.25전쟁 제74주년 참전유공자 위로연

고령군은 6.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25일 참전유공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며 위로연을 개최했다.

올해도 참전유공자분들이 고령의 어르신인 점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을 대신했다.

이날 위로연에는 관내 6.25참전유공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

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석규 6.25참전유공자회 고령군지회 감사외 4명에 대한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6.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Korea Press Foundation. It features a glass and a steering wheel. The text reads: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No! If you've emptied your glass, please vacate the driver's seat.) At the bottom, it says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This slogan wa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 Jeon Seok-min.)

창간 28주년

\*접수기간 : 선착순(입금자순)마감

# 2024 대구광역시일보

## 영덕 사랑나눔



# gOLF 큰잔치

7월 24일 수요일

영덕오션비치 골프&리조트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행사장소 : 오션비치 2층 대식당



참가규모 총40팀(160명)

**접수기간 ~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13분 ~ 순차티오프

### 참가신청

- 참가자격 : 전국 남·여 아마추어골퍼
- 당일 참가비 : 23만원(그린피18h, 카트1회, 저녁만찬, 참가 시상품등)
- 1박2일 참가비 : 45만원(그린피36h, 카트2회, 저녁만찬, 숙박, 조식, 참가 시상품등)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선입금 : 선착순마감(신청확정 후 취소시 환불불가) \*본인이 양도는 가능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가수 우순실



가수 백봉기

\*출연 연예인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 시상내역

- 매달리스트(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우승(통합) : 풀세트
- 신페리오 준우승(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3위(통합) : 드라이버
- 니어리스트(남·여) : 퍼터
- 롱 기스트(남·여) : 드라이버
- 이글상, 최다 버티, 파, 보기, 더블파등  
기타 상품지급